



기획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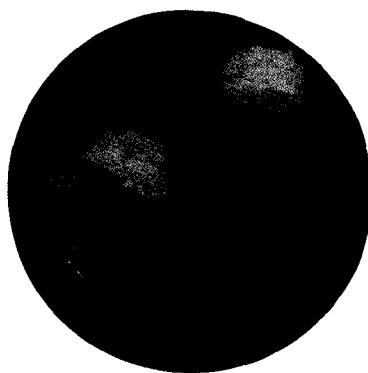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새로운 조경수(X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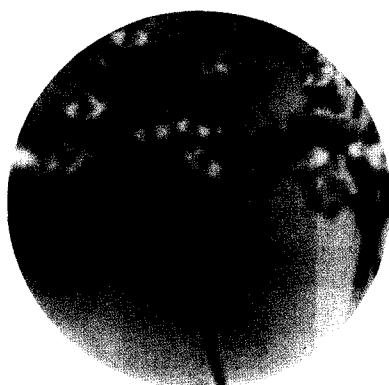
- 말발도리 -



▲ 말발도리의 꽃과 화서



▲ 말발도리의 개화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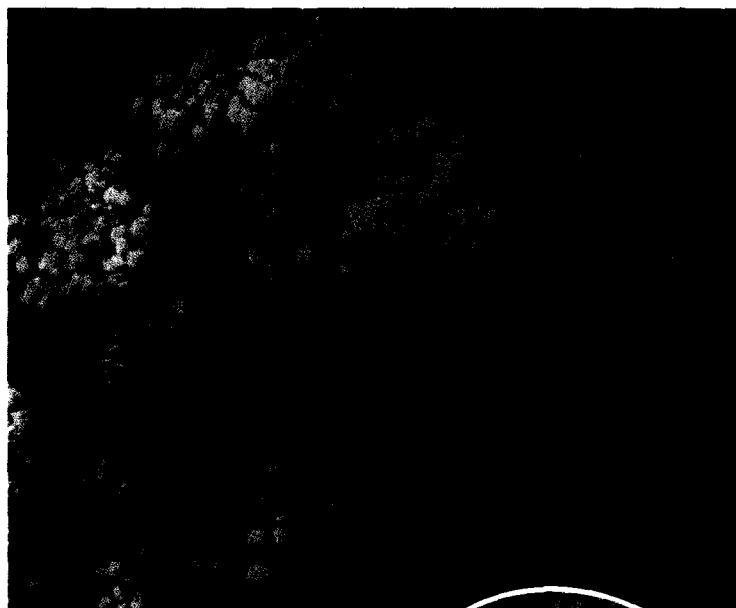
말발도리의 열매 ▶

○ 종류 및 생육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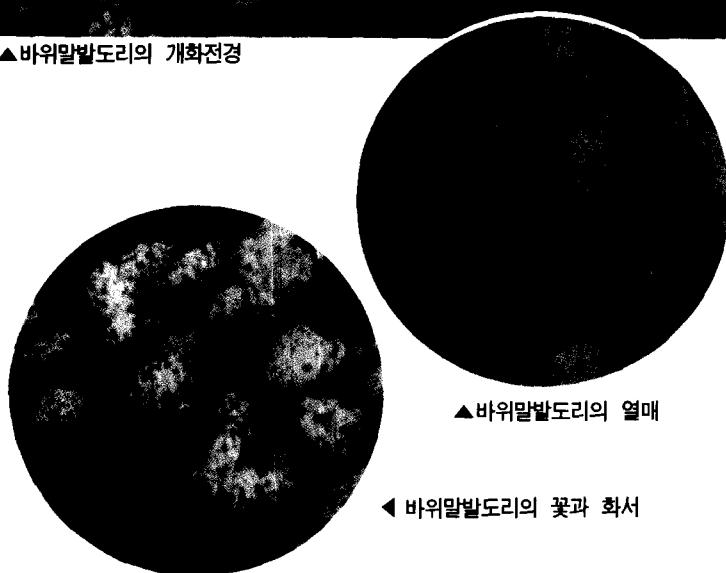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말발도리나무의 종류는 기본종으로 말발도리, 꼬리말발도리, 바위말발도리, 매화말발도리등 4종이 있고 변종으로 태백말발도리, 텔말발도리, 속리말발도리(이상은 말

표1. 말발도리나무의 종류

국명	학명	일본명
· 말발도리	<i>Deutzia parviflora</i> Bunge.	トウウツギ
· 꼬리말발도리	<i>Deutzia paniculata</i> Nakai	ナガホウツギ
· 바위말발도리	<i>Deutzia prunifolia</i> Rehder.	イワウツギ
· 애기말발도리	<i>Deutzia gracilis</i> S. et Z.	ヒメウツギ
· 등근잎말발도리	<i>Deutzia scabra</i> Thunb.	ツクシウツギ
· 매화말발도리	<i>Deutzia coreana</i> Lev.	チョウセンウメウツギ



▲ 바위말발도리의 개화전경



▲ 바위말발도리의 열매

◀ 바위말발도리의 꽃과 화서

발도리의 변종), 넓은잎말발도리(바위말발도리 변종), 지리말발도리 및 해남말발도리(매화말발도리의 변종)등 6종이 있으며 일본서 도입된 등근잎말발도리, 애기말발도리등 2종을 합하면 모두 12종이 생육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매화말발도리는 우리나라 특산종이다.

이들 수종은 수고가 2m이상 자라지 않고 다지다간성(多枝多幹性)으로 덤불을 이루고 있으며 내한성, 내건성이 강하며 전국산야의 암벽이나 바위틈등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 자라고 있다.

수종별 특성은 (표 2)와 같다.



▲ 매화 말발도리의 꽃

표2 수종별 생육특성

수종	가지 및 잎	꽃 및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밀발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2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 어린가지에 성모(星毛)가 있음. 잎은 대생하고 난상타원형이며 점첨두(漸尖頭). 보통잎의 길이는 3~6cm이지만 맹아지(萌芽枝)의 잎은 10cm나 됨. 잎가장자리에 잔 거치가 있고 뒷면에 성모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5월에 순백색으로 피고 성모가 있으며 꽃의 지름 12mm. 화서는 산방화서(繖房花序)로 한개의 화서에 40~50개의 꽃이 달림. 열매는 삭과(蒴果)로 9월에 익으며 지름이 3~5mm. 	전국산야	계곡부 바위틈
꼬리밀발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2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 어린가지에 털이 없고 흥갈색이며 수피가 새로로 갈라짐. 잎은 대생이고 난상타원형이며 잎의 끝이 꼬리모양으로 약간 길어짐. 잎의 길이 7~10cm. 잎표면에 3개로 갈라진 성모가 있고 뒷면에는 털이 없으면 잔거치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5월에 백색으로 피고 털이 없으며 꽃의 길이 4~5mm. 화서는 원추화서(圓錐花序). 열매는 삭과로 9월에 익고 둥글며 지름이 3mm정도. 	경·남북, 함남	계곡부 바위틈
바위밀발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1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 어린가지에 털이 있고 가지는 회갈색이며 수피가 벗겨짐. 잎은 대생하고 난상타원형이며 점첨두. 잎의 길이 15~75mm, 넓이 8~40mm. 잎의 양면에 성모가 있으나 뒷면의 성모는 점차 없어지고 가장 자리에 잔거치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5월에 백색으로 피고 곁에 성모가 있으며 길이 12~13mm. 화서는 복방상화서(複房狀花序). 열매는 삭과로 9월에 익음. 	전국산야	산복의 암벽틈
애기밀발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1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 어린가지에 털이없고 다지형(多枝形)임. 잎은 대생하고 난상피침형 예첨두(銳尖頭). 잎의 길이 3.5~10cm, 넓이 2~4cm. 잎의 가장자리에 잔거치가 있으며 양면에 성모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5월에 백색으로 피고 꽃잎의 길이 1cm. 화서는 원추화서. 열매는 삭과로 9월에 익으며 둥글고 지름은 4mm정도. 	일본	산록의 임연부
등근잎밀발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2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 어린가지에 성모가 있음. 잎은 대생하고 난형 또는 광난형이며 예첨두. 잎의 길이 3~8cm, 넓이 2.5~4.5cm. 잎의 양면에 성모가 있고 치아상(齒牙狀)의 거치가 있으며 표면의 엽맥이 들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5~6월에 백색으로 피고 꽃봉우리는 붉은색이고 꽃잎의 길이는 6mm정도. 화서는 총상원추화서(總狀圓錐花序)로 성모와 단모가 있음. 열매는 삭과로 9월에 익고 둥글고 성모가 밀생하며 지름 3mm정도. 	일본	산록의 임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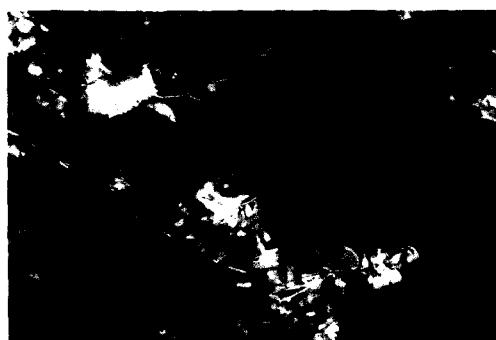
매화말발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고 1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 어린가지에 성모가 밀생. 잎은 대생하고 긴타원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며 점첨두. 잎의 길이 4~6cm. 잎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잔거치가 있고 양면에 4~6개로 갈라진 성모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4~5월에 전년지(前年枝)에서 백색으로 피고 꽃잎 길이 15~30mm. 열매는 삭과로 9월에 익고 종형(鍾形)으로 3개의 흄이 있음. 	전국산야	표고 100~1,300m 바위틈
--------	---	--	------	----------------------

(주)

- 말발도리나무중에 잎뒷면에 옆맥위에 털이 밀생하고 있는 것을 태백말발도리, 잎뒷면에 성모가 단모(單毛)가 있는 것을 텔말발도리 뒷면에 성모가 밀생하며 흰빛이 도는 것을 속리말발도리라고 함.
- 바위말발도리 중에 잎이 난상원형이고 엽저(葉底)가 원형 또는 아심장형이며 뒷면에 성모가 밀생하고 있는 것을 넓은잎바위말발도리라고 함.
- 매화말발도리중에 잎에 3개로 갈라진 털이 있고 열매표면에 4개로 갈라진 털이 있으며 암술이 4개로 갈라진 것을 지리말발도리, 잎에 선상(腺狀)의 거치가 있고 잎표면에는 털이 없으나 뒷면에 4개로 갈라진 성모가 있으며 일년지에 줄기가 있는 성모가 있는 것을 해남 말발도리라고 함.



▲동근잎말발도리의 개화전경



◀
동근잎말발도리의
꽃과 화서

○ 조경소재로서의 활용 가치

이들 수종은 줄기와 가지가 총생(叢生)하기 때문에 전지, 전정으로 수형을 마음대로 다듬을 수 있고 약 2개월간에 걸쳐 흰꽃이 피어 나무 전체를 탐스럽게 뒤덮고 있는 광경은 아름답다.

그리고 이들 수종은 척박지에서도 잘자라기 때문에 식재 장소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조경수로 활용범위가 대단히 넓다.

즉, 도로 및 철로사면의 절개지 및 적석지(積石地)의 조경, 각종정원, 공원, 학단등에 회양목, 동근측백, 동근향나무를 대신하여 얘기말발도리를 식재하면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어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 번식 및 양묘방법

이들 수종의 번식은 삽목, 분주, 파종등에 의하여 번식할 수 있으며 삽목은 녹지삽목이 좋고 분주는 이른 봄에 하는 것이 좋다.

종자에 의한 양묘시에는 가을(9월)에 익은 열매가 벌어지기전에 채취하여 말려서 탈종을 한다음 기건상태(氣乾狀態)에서 잘저장하였다 이듬해 봄에 온실 및 비닐하우스내에 1m폭의 조상(造床)을 하고 상면에 5mm정도 두께의 이끼를 깔든가 피트모스와 버미규라 라이트를 섞은 것을 5mm정도 깔든지 하여 그 위에 종자를 파종하고 복토를 하지 않는다.

세립종자이기 때문에 복토를 하면 발아가 잘 되지 않는다. 파종시에는 특히 밀파가 되지 않도록 하고 파종후 관수는 분무기로 하여야 하며 발아가 될 때까지는 상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루에 3~4회 관수를 하여야 한다.



▲애기말발도리의 개화전경



▲애기말발도리의 열매



▲애기말발도리의 꽃과 화서